



# 호텔 베이커리가 거세게 밀려온다

로드숍 및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 등 사업 확장

〈취재·김민정〉

호텔들이 앞다퉈 베이커리 업계에 뛰어들고 있다. 숙박업 대신 빵 장사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 만큼 호텔의 베이커리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계열의 백화점 위주로 입점,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백화점 입점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로드숍 및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베이커리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호텔이 베이커리 사업을 가속화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숙박업은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반해 외식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고, 머지 않아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점차 서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호텔 베이커리는 자연 발효식빵 등 식사대용 빵류와 디저트용 제품을 주력상품으로 개발, 식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둘째, 베이커리 사업이 외식산업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면적, 소규모 인원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 외식사업팀 담당자는 "실제 베이커리 부문이 양식당이나 중식당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한다.

거대 자본력, 고급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인지도를 등에 업은 호텔들이지만, 베이커리 업계에 몸담은 역사가 짧은 만큼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 베이커리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 본다.

## 신라호텔 베이커리

꾸준한 매출 신장으로 기지개 켜기 시작  
내년 상반기경 사업 더욱 가속화할 예정

신라호텔은 신라명과가 분리될 당시 향후 15년간 베이커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이 1999년 5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입점, 베이커리 사업에 나섰다. 그 후 분당 삼성플라자,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 8월에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또 하나의 매장을 오픈, 총 4개의 직영점을 개설한 상태다. 신라호텔 측은 올해 베이커리 부문의 매출이 약 80억원, 내년에는 총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라호텔은 신라명과와 연계되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신라호텔 베이커리'를 대신할 새 브랜드명을 개발,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천호점, 신촌점에 입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라호텔은 차후 제2의 브랜드를 만들어 할인점 내 인스타어 베이커리의 입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상반기 이후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은 현재 서울 신라호텔 내에 공장을 두고 각 매장에 전체 생산량의 5% 정도의 냉동 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할인점 입점이 본격화되면 제2의 공장 준공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라호텔 제과팀 담당자는 "백화점 입점 점포들의 매출이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차별화된 맛과 컨셉으로 베이커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생각이다"고 사업 목표를 밝혔다.

## 호텔 베이커리 현황 및 계획

(2002년 11월 15일 현재, 각사에서 밝힌 자료임)

호텔명	브랜드명	입점 현황	입점 계획
신라호텔	신라호텔 베이커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미아점, 목동점, 삼성플라자 분당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천호점, 무역센터점 입점 예정 (내년 상반기 경 확정)
조선호텔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조선델리	이마트 44개, 신세계 백화점 5개, 조선델리1개 매장	2005년까지 총 80개 매장 운영 예정
현대호텔	현대호텔 베이커리, 베즐리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 부산점, 울산점, 목동점	2005년까지 총 15개 매장 운영 예정
하얏트호텔	하얏트 델리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

### 조선호텔 베이커리

공격적인 경영으로 업계 1위 자리 굳히기  
2010년까지 총 120개 매장 운영 계획

조선호텔은 1996년 베이커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2000년에는 별도의 베이커리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중 친화적 이미지의 '데이앤데이'와 고급 이미지의 브랜드인 '달로와요'로 호텔 베이커리 업계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매출 규모는 2001년에 550억원, 올해는 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내년이면 베이커리 매출이 800억원을 돌파해 700억원대인 숙박업보다 매출이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호텔은 11월 중순 현재 '데이앤데이'는 44개, '달로와요' 5개, 조선델리 1개 등 총 50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데이앤데이 4개 매장, 달로와요 1개 매장 등 총 5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2005년까지는 총 80개, 2010년까지는 총 120개 매장을 보유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경 총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천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호텔은 공장 견학 등 소비자 홍보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제품 개발 및 각종 마케팅 전략으로 앞서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현대호텔 베이커리

2006년까지 15개 직영점 운영 예정  
로드숍 및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도 고려 중

현대호텔은 2000년 8월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 입점을 시작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과 12월 각각 부산점, 울산점을 오픈한데 이어 2002년 8월에는 현대호텔 베이커리 & 델리, '베즐리(bezzly)'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출시표를 던진 상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천호점, 신촌점에 연달아 매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6년까지 경인지역에 6개, 영남지역에 9개 등 총 15개 매장을 추가 오픈 할 예정인데 주로 백화점 위주로 입점할 계획이지만 향후 로드숍이나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현재 외식 사업부 아래 베이커리 사업부가 속해 있는 것에서 탈피, 2005년 쯤에는 별도의 베이커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사업을 보다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대호텔 외식사업팀 담당자는 "현대호텔의 이미지에 맞는 최상급의 재료를 이용한 고급 제품, 고객 눈높이에 맞는 가격으로 인지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해 나갈 예정"이라고 사업 방향을 밝혔다.